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김창래*

삼일 PricewaterhouseCoopers 컨설팅
chang-rae.kim@kr.pwc.com

I. 들어가는 말

현 정부와 서울시는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최근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로 선정되면서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한편으로 최근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기반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금융중심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지구로서 서울시가 활성화되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금융중심지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경쟁력 요소 별 서울의 현황을 파악하고 핵심경쟁력 요소별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현 삼일 PricewaterhouseCoopers 컨설팅 이사
-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 제2차여의도재개발, 여의도국제금융지구활성화방안발제
- 서울의 금융경쟁력 및 금융산업의 해외인지도 조사연구

II. 금융중심지란?

1. 금융중심지의 정의

우리가 상상하는 금융중심지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도시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높은 빌딩숲 속 세계금융의 상징인 국제 거래소와 그 안의 다양한 인종들이 쉴 새 없이 모니터와 전화기를 붙들고 일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 지게 된 것일까?

전통적인 견해에서 금융중심지는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제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지’를 의미한다. G.Dufey와 I.Giddy는 ‘국가/지역단위 금융거래를 다루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심지’를 금융중심지로 정의했다. C.Kindleberger는 ‘자금수요자(투자)와 자금공급자(저축)간 연계를 통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중심지’를 금융중심지로 보았다.

여태까지 금융중심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①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②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 ③자금수요자와공급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금융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중심지의 핵심적인 요소들 자체는 일단 시대와 그 특성을 초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금융중심지로서의 핵심경쟁력 요소

앞서 살펴본 금융중심지의 정의와 그리고 현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일컬어지는 도시들의 모습에서 금융중심지로서 갖추어야할 핵심 경쟁력 요소들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각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한 각 도시별 평가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각 경쟁력 요소별 가중치가 반영되었다.

<표 1> 금융중심지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경쟁력 요소

핵심경쟁력 요소	정의
Human	인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금융산업 내 활동하는 인력의 전문성/전문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영어구사 능력 및 안정적 노사관계 수준을 나타냄
Corporate	기업의 역량 및 관련 서비스 기관의 클러스터 형성 정도 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기업의 성장속도/기업의 매출규모 및 국제화 정도/금융 연관 기업들의 밀집도 수준을 나타냄
Market	금융과 관련한 법규, 감독,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규제 의선진성/경쟁력 있는 조세정책/정부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수준을 나타냄
Government	금융시장의 매력도와 개방성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금융시장의 규모 및 금융 거래량의 크기/자본이동의 자유성/금융시장 개방성 수준을 나타냄
Living	한 도시 내 거주하는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주거환경의 쾌적함/생활의 편리성 및 안전성/문화매력도 수준을 나타냄
Infra Structure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이동과 관련된 도로, 철도, 공항/실제업무 위한 빌딩, 인터넷망/도시기반 시설 및 관련시설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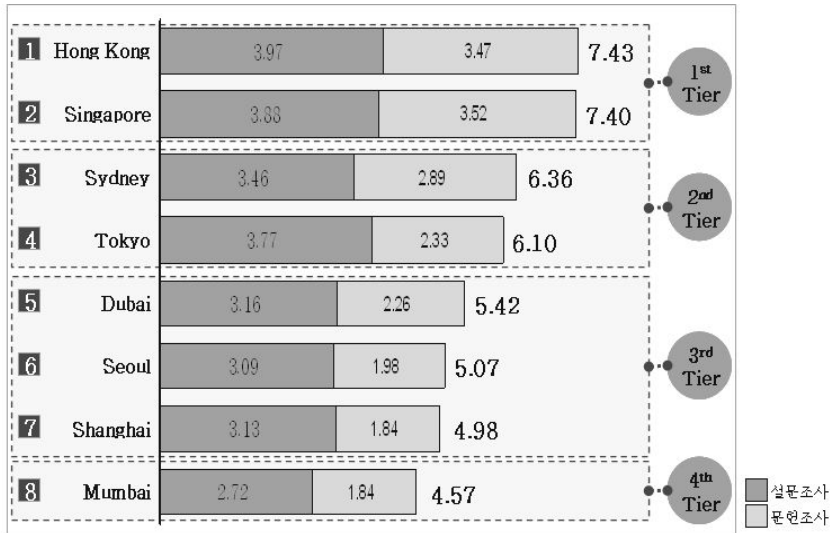
III.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현황

1. 아시아 8개 도시 중 6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2008 서울의 금융경쟁력 및 금융산업의 해외인지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아시아 8개국 중 6위로 평가되었다.

그룹 별로 살펴보면, 전 영역에서 고르게 상위권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1, 2위를 차지하며 금융 중심지로서 국제적 경쟁력 및 인지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1st Tier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와 도쿄는 각각 2, 3위를 차지하며 2nd Tier그룹에 속했다. 2nd Tier그룹은 전반적인 금융하부구조가 성숙한 수준이나, 핵심 경쟁력 요소 중 일부가 미흡하여 1st Tier와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바이, 서울, 상하이선 각각 4, 5, 6위를 차지하며 3rd Tier그룹을 형성했다. 3rd Tier그룹은 앞의 두 그룹과 달리 최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최근 핵심경쟁력 요소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는 뭄바이가 8개 도시 중 최하위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4th Tier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4th Tier그룹의 경우 금융 중심지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하부구조

가 미약하며 핵심 경쟁력 요소 전 영역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동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금융도시 순위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상대적인 부상 및 두바이의 침체 등으로 위 순위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잠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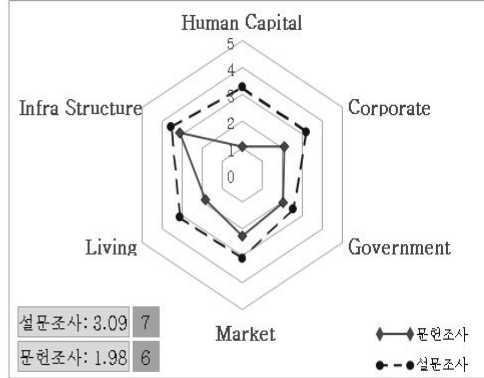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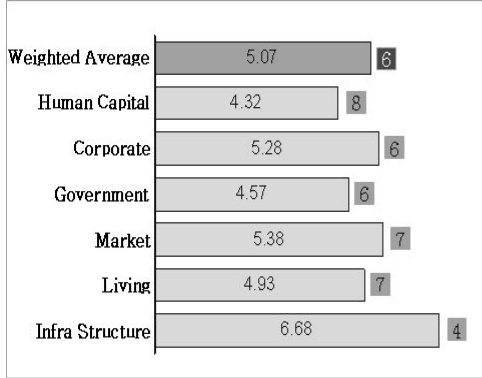


자료: 서울의 금융경쟁력 및 금융산업의 해외인지도 조사 연구 보고서
[그림 1] 경쟁력 평가 종합 순위 (10점 만점)

<표 2> 그룹별 특징

1st Tier	전 영역에서 글로벌금융도시의 수준에 부합
2nd Tier	성숙한 하부구조가 뒷받침되었으나 특정영역이 개선되면 1st Tier에 진입
3rd Tier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및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나 성숙하지 못함
4th Tier	하부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전 영역에 걸친 개선이 필요

2. 핵심 경쟁력 평가 요소 별 서울의 경쟁력 현황



자료: 서울의 금융경쟁력 및 금융산업의 해외인지도 조사 연구 보고서

[그림 2] 핵심경쟁력 평가요소별 순위

[그림 3] 문헌조사/설문비교

종합 6위인 서울은 Infra Structure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Human Capital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서울은 Infra Structure 부문에서 IT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설문조사와 문헌조사 모두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rd Tier 그룹 중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위권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Human Capital과 Market 부문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Human Capital 부문이 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동 부문에서 서울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는 문헌조사에서 Human Capital 부문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전문 인력의 수준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불안정한 노사 관계 및 영어 사용 미흡으로 인해 일반적인 인력 수준 또한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Gap의 존재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경쟁력 수준(특히 국내인들)과 서울의 실질적인 경쟁력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 등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금융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IV. 서울시 국제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1. 정책과제 도출 개요

앞선 서울시에 대한 현황파악을 기반으로 서울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전략방향 아래 10대 서울시(여의도) 국제 금융지구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4] 서울시 금융경쟁력 강화 10대 과제

2. 서울시 금융경쟁력 강화 10대 정책과제

정책과제 1. 금융전문교육기관의 확충 지원

금융전문교육기관 확충은 금융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서울시 금융경쟁력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서울의 금융전문인력 부족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진출을 저해하며 이는 다시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세계적인 금융 및 경영관련 전문교육기관을 다수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관련 글로벌 인재가 서울로 모여 금융 지식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배출되는 금융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및 유수의 금융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의 유치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를 금융교육의 국제적인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2. 글로벌 전문 금융인력 네트워크 확립

글로벌 전문 금융인력 네트워크 확립은 핵심인재와 전문인력에 대한 서울시의 접근성을 높여 아시아 정보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향후 자문 및 업무교류 등에 활용할 해외 금융 전문인력 관련 DB 구축 및 해외 전문인력 월간지 발행, 해외 거주인력 리크루팅 지원, 각종 금융관련 학술,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해외 자문단 구성 등의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금융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3.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 개선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은 해외금융기관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문화와 노동생산성 저하원인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인력운영에 있어 노조 및 언어 문제로 인한 해외기업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물리적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지원이 일반화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여의도 등 금융특구 내 무노조 지구 지정 또는 해고/고용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 완화지구 제정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책과제 4. 서울시 이미지 개선(문화, 기업환경)

서울시 이미지 개선(문화, 기업환경)은 기존의 서울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개선하고 외국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문화도시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서울의 부정적인 인상을 불식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문화도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서울' 을 위한 특별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CRM형 행정서비스를 통한 홍보효과 강화, 서울 관련 각종 국제기관의 평가 Data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작업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5. 기업 및 노사문화 개선 지원

기업 및 노사문화 개선 지원은 서울에 대한 과격한 노사관계 이미지를 제거하고 평화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기업친화적 도시로서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평화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기업친화적 도시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히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내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기업의 책임관점에서 CSR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운동 전개, 해외금융기관을 위한 노동법규 특별완화 등의 실천방안이 제시되었다.

정책과제 6. 문화매력도 개선

문화매력도 개선은 서울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문화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의 對 서울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Hi Seoul Festival 개선, 외국인에게 친근하고 인상적인 문화 아이콘 개발, 관광정보 통합 DB화 등 참신한 아이디어 및 기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7. 도시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은 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인프라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내 외국인 대응 전담경찰 증원, 외국인 의료, 교육 시설 확충, 도시 내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 및 도보가능성(Walk-ability) 개선, 교통표지 등 생활인프라 영어 공용화, 외국인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세부 지원과제 수행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8.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조성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은 국내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해외 선진금융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성과중심의 근로문화장려, 실업수당 지원 및 재교육기회 확충, 글로벌 Law Firm을 위한 법률 시장개방, 각종 공공양식 영어공용화, 불공정거래 신고 시스템 확충 등으로 제시되었다.

정책과제 9. 사무실 임대 및 해외진출 환경 개선

사무실 임대 및 해외진출 환경 개선은 외국인의 사무실 임대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과제로는 외국인 전용 인터넷 부동산서비스 개설, CBD(Commercial Business District) 확충과 사무실 공급 확대, 외국인의 부동산 계약 관련 양식 및 관련 법률 일괄 표준화 및 영문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역외무역활동(off-shore trade)에 거래 시 거래차익 세금면제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과제 10. 실행조직 역량개선

실행조직 역량개선은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조직의 위상, 책임 및 권한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 지자체에 산재한 금융중심지 관련 업무부서를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형태로 일원화하고 금융중심지 Control Tower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금융도시 구축 추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이상으로 금융중심지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경쟁력 요소 별 서울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서울을 금융중심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금번에 도출된 과제들도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과제들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금융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란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현재 여의도에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공사가 한창인 것처럼 위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들이 하나씩 실현될 때에만 서울은 금융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울시, 2008, 『서울의 금융경쟁력 및 금융산업의 해외인지도 조사 연구 보고서』, 삼일PwC
- 강형철 외, 2008, 『금융허브경쟁력 제고방안 및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재정경제부
- 삼일경영연구원, 『산업 Focus: 투자은행의 구도재편과 시사점』, 삼일 PwC
- 전병목 외, 2007,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City of London, 2008,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4
- Price Waterhouse Coopers, 2008, Banking & Capital Markets
- Price Waterhouse Coopers, 2008, Financial Services Survey
- Price Waterhouse Coopers, The World Bank, 2006, Paying Taxes
- The World Bank, 2008, Doing business 2008